

I

접경지역 한탄강 인문자원 발굴 개관

- 1.1 조사 목적과 내용
- 1.2 한탄강 지역 개관
- 1.3 조사 방법과 절차
- 1.4 한탄강 관련 행사 및 단체



행정자치부

접경지역 한탄강 인문자원 발굴

제1부. 접경지역 한탄강 인문자원 발굴 개관

1.1 조사 목적과 내용

본 발굴조사 보고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발주한 <접경지역 한탄강 인문자원 발굴 및 브랜드 구축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수행된 결과물 가운데 인문자원 발굴에 대한 것이다. 즉 접경지역내 2개도(경기, 강원), 3개 시군(철원군, 포천시, 연천군)이 공유하는 한탄강을 중심으로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해당 지역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수집한 인문자원 자료들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정리·분석한 것을 내용으로 한 보고서이다.

이와 같은 발굴조사의 목적은 현재 3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탄강 걷는길(가칭)’의 이야기 지도와 공동브랜드 제작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자료 조사는 철원군, 포천시, 연천군 순으로 각 지역의 1)역사적 배경 2)지리와 생태 3)민속 문화와 문화재 4)인물 5)관광자원 6)설화와 지명유래 7)6.25 전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3개 시군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표성을 고려하여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지자료 조사는 1)마을의 유래 및 생활 2)마을의 설화 3)마을의 지명유래 4)마을의 6.25 경험담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다만 일부의 마을 가운데에서 주민이 살지 않는 법정리나 제보자가 마을의 설화를 알지 못하거나 6.25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못내 아쉬움을 남겼다. 현지조사 자료의 기술은 답사 일정을 무시하고 한탄강 상류 지역에서부터 거슬러 내려오면서 서술하였고, 한탄강 주변 마을의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증언을 채록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문헌자료가 거시적이라면 현지조사 자료는 초점이 미시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문헌자료 가운데 한탄강 인접 마을의 자료들은 현지조사 자료에 포함시켰음을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한탄강을 소재로 한 문학, 음악, 미술, 영상자료 등 예술작품 분류·목록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제1부 접경지역 한탄강 인문자원 발굴 개관, 제2부 문헌조사 자료, 제3부 현지조사 자료, 제4부 한탄강 관련 예술 작품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1.2 한탄강 지역 개관

한탄강(漢灘江)은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平康郡) 현내면(縣內面) 상원리(上元里)의 장암산(長岩山, 1052m)에서 발원하여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의 도감포(都監浦)에 이르러 임진강에 합류하는 총 연장 144km의 지방하천이다.

오늘날 한탄강의 물길이 유유히 흐르는 계곡은 제4기 홍적세(200만 년 전~1만 년 전) 사이 땅속 깊숙한 곳에서 끓고 있던 용암이 철원에서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평강의 오리산에서 분출하면서 시작된다. 분출은 최소한 10번 이상 계속되었는데, 골렁골렁 흐르는 오리산의 용암은 대지를 메우고, 추가령구조대의 낮은 골짜기를 따라 흐르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현무암층을 형성하였고, 이후 서리 작용과 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침식작용을 반복함으로써 오늘날의 비경을 자랑하고 있는 한탄강 협곡을 만들게 된다.

현재 한탄강을 행정구역 안에 포함하고 있는 연천군과 포천시, 강원도 철원·평강군에 대하여 옛 지리지인《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 후기의 각종 지리지, 각 군 읍지(邑誌) 등을 참고해보면 지금의 한탄강이라는 명칭을 찾아볼 수 없고, 우리나라 큰 강과 하천에 나타나는

특징처럼 구간구간 마다의 고유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옛 지리지에 나타나는 한탄강의 구간별 명칭은 아래와 같다.

· 광탄(廣灘) : 발원지인 장암산에서 쌍령(雙嶺)에서 발원하는 부소천(釜沼川)이 합류하는 회양군(淮陽郡) 난곡면(蘭谷面) 낭하리(浪下里)까지의 옛 이름으로, 연장은 41km이다.

· 당탄(塘灘) : 낭하리에서 내려오는 본류와 김화의 불정산(佛頂山)에서 발원하여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亭淵里) 앞의 당구미 아우라지에 남대천(南大川)이 합류하는 지점까지의 명칭이다. 연장 22km.

· 체천(砌川) : 한탄강 양 옆의 현무암 절벽이 무덤 앞에 놓이는 섬돌(砌石)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당구미에서 포천군 영북면 자일리의 화적연(禾積淵=벚날가리소)까지의 명칭이다. 연장은 35km이다.

· 마흘천(磨訖川) : 화적연에서 포천군 이동면의 백운산(白雲山)에서 발원하는 영평천(永平川)이 합류하는 전곡읍 신답리 아우라지까지의 이름이다. 연장 25km이다.

· 대탄(大灘) : 신답리 아우라지에서 임진강에 합류하는 군남면 남계리 도감포까지의 옛 이름으로 ‘한여울’이라는 우리 고유어로 불리고 있다.¹⁾

신성한 강 대탄(大灘), 한여울 그리고 한탄강²⁾



그림 2 전곡읍 신답리 ~ 군남면 남계리

위의 사진은 전곡읍 전곡리와 청산면 초성리 놀미 사이의 한여울 모습이다. 한탄강의 유래가 되는 이름이다.

* 내시별감(內侍別監)을 보내어 감악(紺嶽)과 양주(楊州) 대탄(大灘)의 신(神)에게 제사하였다.

〈태종실록 16년(1416) 10월 15일〉

* 내시별감(內侍別監)을 보내어 감악(紺嶽)·대탄(大灘)의 신(神)에게 치제(致祭)하였다.

〈세종실록 16년(1434) 9월 28일〉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대탄(大灘)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사(記事)이다. 조선 왕조 초기 태종과 세종은 왜 대탄(大灘)에 근시(近侍)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을까? 대탄

1) 연천문화원, 연천군 향토사료집, 1995.

2) 이하의 내용은 주로 연천의 향토사학자 최병수 선생이 보내주신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大灘) 즉 현재의 한탄강은 그만큼 신성(神聖)한 강이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한탄강이라고 부르는 강의 이름은 대탄(大灘), 즉 ‘한여울’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다. 본래 대탄은 전곡읍 전곡리와 청산면 놀미 사이에 있는 큰 여울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부터 지명이나 인명, 관직명 등에 ‘크다’는 뜻으로 써온 말인 ‘한’과 ‘여울’이 합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한여울’로 불렸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한’이 한자 지명으로 보편화되어 옛 지리지에서처럼 ‘大灘’으로 옮겨 쓰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한여울’이 어느 때부터인가 앞 음절 ‘한’이 실제 뜻과는 전혀 무관한 한자의 ‘漢(한)’으로 바뀌어 쓰이면서 ‘漢灘(한탄)’이 되었고, 다시 일제 강점기에 와서 지명이 통일되면서 뒤에 ‘江(강)’이 덧붙여 오늘날의 한탄강이라는 표준지명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태봉의 국왕이었던 궁예의 패망 시 그가 이 강에 이르러 비운을 한탄했다는 전설과, 8·15와 6·25 당시 3·8선 경계가 되었던 지리적 입지조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恨)을 심어 주었다 하여 ‘한탄강(恨灘江)’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림 3 왼쪽의 임진강과 오른쪽의 한탄강이 합류하는 도감포 부근. 두 강의 물빛이 확연히 차이난다.

과거에는 서해바다에서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와 도감포를 거쳐 전곡리의 높은 여울(高灘洞)까지 새우젓, 소금, 조기를 싣고 올라온 향포돛배들이 수시로 왕래했다. 높은 여울 부근에 있던 점터에서는 옹기를, 도감포에서는 화진벌에서 생산된 미곡 등을, 고랑포에서는 콩과 인삼, 또 땔나무를 바꾸어 다시 강을 따라 서해바다로 나아가 한양의 마포나루 등지의 객주들에게 물건을 넘김으로써 한탄강을 이용하여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에 철길이 놓이고 신작로가 나기 전까지 한탄강은 새로운 물건과 소식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생활과 문명의 통로였다. 한탄강을 따라 생겨난 포구마을은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장터였던 것이다. 그리고 강안(江岸)을 따라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은 시인, 묵객들이 시(詩)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경승지(景勝地)가 되었던 것이다.

현재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에서 군남면 남계리 도감포까지의 명승지는 아래와 같다.

- 정자연(亭子淵) :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 칠 담(漆 潭) :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 직 탕(直 湯) : 철원군 동송읍 장흥3리
- 고석정(孤石亭) :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 、 순 담(蓴 潭) :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그림 4 철원군 동송읍 장흥 4리 고석정 부근 한탄강

- 、 화적연(禾積淵) :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그림 5 현재 화적연의 모습

- 비둘기낭 : 포천시 영북면 대화산리



그림 6 비둘기낭

- 보름소(望月沼) : 포천군 관인면 중2리
- 곧은여울(直灘) : 포천군 관인면 중2리
- 도리연(桃李淵) : 포천군 관인면 중2리
- 재인폭포(才人瀑布) :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그림 7 재인폭포

- 、 아우라지 :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그림 8 한탄강과 영평천이 합류하는 아우라지.

- 、 선봉바위(仙峰巖) :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그림 9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한탄강가에 있는 선봉(仙峰). 또 다른 이름 풀무산(冶山)이라고도 한다.

1.3 조사 방법과 절차

한탄강 인문자원 발굴은 문헌자료 조사와 한탄강 인접지역에 대한 현지조사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가운데 문헌자료는 철원군, 포천시, 연천군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괄적인 안내와 소개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고, 현지조사는 3개 시군의 한탄강 인접 마을들을 모두 조사한 것이다.

문헌자료는 1)국가, 개별 지자체 및 민간에 의해 작성된 기존 문헌자료 조사 2) 한탄강 주변 이야기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한탄강 주변의 3개 시군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헌자료에서 한탄강과 연결되는 내용들은 현지조사의 해당 지역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각 지역의 역사적 배경, 지리와 생태, 민속 문화와 문화재, 인물, 관광 자원, 설화와 지명 유래, 6.25 전쟁 등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현지조사 및 주민 면담을 통한 이야기 채증은 모든 연구진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한 결과이다. 면담한 내용을 녹음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진들이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성과물을 분류하고 역시 가능한 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지조사 자료에는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각 지자체 담당자와 마을 이장님, 노인회장님,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 향토사학자, 문화원과 예총 관계자 등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현지조사 내용의 서술 항목은 마을의 유래 및 생활, 마을의 설화, 마을의 지명유래, 마을의 6.25 경험담 등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탄강 주변 마을의 기록할 가치가 있는 의식주, 풍속, 놀이 문화, 의례, 축제, 민속신앙, 민간의료, 주민 개인 생애 등은 많은 제약으로 인해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추가·보완의 후속 조치가 요망된다. 한탄강 관련 예술 작품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기타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것을 문학(시, 소설, 시나리오), 음악, 미술(조각 포함), 사진의 순서로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각각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현지조사 일정과 과정을 상류지역에서부터 보다 상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1 강원도 철원군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 현내면 상원리의 장암산(1052m)에서 발원한 한탄천은 민들레 별판을 가로 질러 남방한계선의 계곡(멸골 op)을 빠져나오자마자, 정자연의 그림 같은 풍경을 남겨놓고 끊어진 철길(금강산 행 철교)의 아픔을 간직한 채 남쪽으로 흐르다가 얼마 뒤, 끊어진 철길로부터 약 1km 지점에서 남대천과 합수되어 비로소 한탄강이 된다. 북쪽으로 철원군 ①정연리와 ②이길리, ③양지리를, 남쪽으로 ④동막리를 끼고 완만하게 서남쪽으로 흐르던 한탄강은 칠만암 부근에서 아래로 꺾어져 오른쪽으로는 ⑤대위리, ⑥오덕리, ⑦장흥리를, 왼쪽으로는 ⑧상사리와 ⑨내대리를 두고 남행한다. 그리고 장흥리와 내대리의 끝자락, 승일교 부근에서 크게 굽이치며 고석정 - 순담계곡의 절경을 새겨놓은 후 다시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오른쪽)과 ⑩갈말읍 군탄리(왼쪽)를 지나 본격적으로 포천시를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북한의 평강군에서 발원한 한탄강은 철원의 정연리에서 남한 지역에 최초로 그 모

습을 드러내어 철원군 2개면 10개 리를 지나며 수많은 비경과 역사의 흔적들을 곳곳에 새겨놓는다. 정연리로부터 군탄리까지 한탄강의 중요한 장소들을 순서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창랑정(정연리-정연8경) → 끊어진 다리(금강산행 철교: 정연리) → 남대천과의 합수머리(정연리) → 토교 저수지(이길리·양지리 경계-신 철원8경) → 칠만암(양지리·대위리·동막리 경계-옛 철원 8경) → 직탕폭포(장흥리·상사리 경계-신 철원8경) → 송대소(장흥리·상사리 경계) → 승일교(장흥리·내대리·군탄리 경계) → 고석정(장흥리·군탄리 경계-옛·신 철원8경) → 순담계곡(군탄리-신 철원8경) → 샘소(군탄리-포천 지정 한탄8경) → 한탄강 리프팅 종착지(군탄리)³⁾

한탄강의 절경 이외에도 한탄강 인근 마을의 역사와 그곳 주민들이 살아온 삶의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본 답사팀은 2015년 7월 25부터 27일까지 3일간 철원군 지역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다. 답사 지역은 한탄강 인근 마을 및 직접적으로 한탄강과 맞닿아 있지는 않으나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남대천이 지나가는 지경리를 포함하여 2개면 11개 리이다. 진행 방식은 첫날은 연구책임자(이병찬)에 의해,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답사 팀이 2개조로 나누어 해당 지역의 제보자에 대한 구연 및 답사 지역을 조사하였다.

1.3.2 경기도 포천시

철원의 정연리에서 한탄천과 남대천이 만나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갖춘 한탄강은 철원 지역을 유유히 흘러가다가 한탄강과 대교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포천 지역에 발을 디딘다. 포천시 관인면 ①냉정리를 오른쪽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를 왼쪽에 끼고 완만하게 서남 방향으로 자리 잡은 한탄강은 이후 오른쪽이자 북쪽으로는 포천시 관인면 지역인 ②사정리, ③중리를 지나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로 넘어가고, 왼쪽이자 남쪽으로는 포천시 영북면 지역인 ④자일리, ⑤운천리, ⑥소회산리, ⑦대회산리, ⑧운산리를 지나 창수면 지역인 ⑨신흥리에서 영평천과 만나며 그 유명한 아우라지 배개용암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관인면 냉정리를 시작으로 영북면의 지역을 지나 창수면 신흥리에 이르기까지 포천의 3개면 9개 리는 한탄강을 생활 터전으로 삼아 질곡의 삶을 함께 해 왔다. 냉정리로부터 신흥리까지의 한탄강 절경은 셀 수 없이 많으나 그 중 중요한 장소들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교천 현무암 협곡(냉정리-포천 지정 한탄강 8경) → 냉정 저수지(냉정리) → 샘소(냉정리-포천 지정 한탄강 8경) → 왕재(왕재이나루: 냉정리) → 화적연(벚가리소: 자일리-영평8경, 포천 지정 한탄강 8경) → 명우리 협곡(소회산리-포천 지정 한탄강 8경) → 교동 가마소(중리-포천 지정 한탄강 8경) → 비둘기낭(대회산리 - 포천 지정 한탄강 8경) → 구라이골(운산리 - 포천 지정 한탄강 8경) → 아우라지 배개용암(신흥리-포천 지정 한탄강 8경)

3) 옛 철원8경은 휴전 이전 철원의 8경을, 신 철원8경은 휴전 이후 철원의 8경을 말한다. 정연8경은 과거 정연리를 중심으로 한 여덟 곳의 명승지를 가리키며, 포천 지정 한탄8경은 포천 시에서 지정한 한탄강 유역의 여덟 곳의 명승지를 가리킨다.

한탄강의 절경 이외에도 한탄강 인근 마을의 역사와 그곳의 주민들이 살아온 생생한 삶의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본 답사팀은 2015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2일간 답사를 실시하였다. 답사 지역은 한탄강 인근 마을 3개면 9개 리이다.⁴⁾ 진행 방식은 첫날은 연구책임자(이병찬)에 의해, 둘째 날은 답사 팀이 2개 조로 나누어 해당 지역의 제보자에 대한 구연 및 답사 지역을 조사하였다.

1.3.3 경기도 연천군

포천 중리와 운산리를 지난 한탄강은 곧은 여울(直灘)로 불리면서 북쪽으로는 연천군 ①연천읍 부곡리를 남쪽으로는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를 갈라놓으며 서쪽으로 흐르다가 부곡리의 끝자락에서 한차례 굴곡진 후 재인폭포를 타고 내려와 오른쪽으로는 ②연천읍 고문리와 ③전곡읍 신답리, 왼쪽으로는 포천군 창수면 신흥리를 가로질러 남행한다. 아우라지 배개용암에서 영평천의 물과 합세한 뒤에는 전곡읍 신답리를 끼고 서쪽을 향해 물길을 트는데, 이 때 한탄강의 아래쪽에 ④청산면 궁평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궁평리와 ⑤청산면 장탄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한탄강은 다시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이번에는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에는 신답리를, 왼쪽으로는 장탄리를 끼고 올라간다. 까닭에 신답리는 지도상으로 보면 마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모양으로 한탄강과 살을 맞대고 있다.

북쪽까지 숨 가쁘게 올라가 신답리와 이별한 한탄강이 이번에는 장탄리를 끼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남쪽으로 향한다. 덕분에 장탄리 역시 한탄강으로 삼면이 둘러싸인 모양새를 취한다. 오른쪽에 ⑥전곡읍 은대리와 ⑦전곡읍 전곡리를, 왼쪽에 장탄리와 ⑧청산면 대전리를 사이에 두고 내려가던 한탄강은 한탄강의 어원이 되었던 한여울이 되어 동두천에서 대전리 사이로 흐르는 신천과 합수한다. 그리고는 시계방향으로 크고 완만하게 굽이쳐서 북쪽의 전곡리와 남쪽의 ⑨전곡읍 고능리를 갈라놓으며 서쪽의 차탄천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긴다. 은대리와 남계리 사이를 흐르는 차탄천과 합수한 한탄강은 비로소 완전한 몸이 되어 ⑩북쪽의 남계리와 남쪽의 고능리 사이를 느긋하게 흘러 도감포에서 임진강과 어우러진다.

이렇게 한탄강은 부곡리로부터 남계리에 이르기까지 연천군의 3개 면 10개 리를 지나가며 무수한 절경과 생생한 인간 삶의 흔적들을 남겨둔다. 연천군의 부곡리로부터 남계리까지 한탄강의 중요한 장소들을 순서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인폭포(부곡리·고문리 사이) → 불탄소(고문리) → 배개용암아우라지(신답리·궁평리·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 선봉 바위(좌살 바위: 장탄리·신답리) → 장구맥이(장탄리·신답리) → 배터거리(전곡리·장탄리-한여울) → 신천 합수지점(전곡리·대전리) → 한탄강 철교와 한탄강 오토 캠핑장(전곡리·고능리) → 전곡리 선사유적지(전곡리) → 차탄천 합수지점과 삼형제 바위(은대리·남계리·고능리) → 도감포(남계리·고능리·동이리)

한탄강의 절경 이외에도 한탄강 인근 마을의 비경과 그곳의 주민들이 살아온 역사와 생생한 삶의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본 답사팀은 2015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간에 걸쳐 답사를 실시하였다. 답사 지역은 한탄강 인근 마을 10개 리 외에 직접적으로 한탄강과

4) 이 중 신흥리는 현재 주민이 살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문헌자료를 참조하였다.

맞닿아 있지는 않으나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통현리와 황지리를 포함하고, 영평천과 맞닿아 있는 백의리를 합쳐 3개면 13개 리이다.⁵⁾ 진행 방식은 첫날은 연구책임자(이병찬)에 의해, 둘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답사 팀이 2개 조로 나누어 해당 지역의 제보자에 대한 구연 및 답사지역을 조사하였다.

5) 이 중 부곡리는 현재 주민이 살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문헌자료를 참조하였다.

1.4 한탄강 관련 행사와 단체

1.4.1 철원군

- ① 한탄강 백일장(철원문화원) : 『한탄강 사랑』(현재까지 12호 발간-백일장, 사생대회 수상 작품집)
- ② 한탄강 자전거 트래킹 대회
- ③ 한탄강 누드 사진 촬영 대회



그림 10 한탄강 누드사진 대회 1



그림 11 한탄강 누드사진 대회 2

1.4.2 포천시

- ① 한탄강 자연유산 체험 : 5월-10월 중 토.일요일 상설 운영, 1)화산 모형 체험 2)전통 활 만들기 3)쪽구들 만들기 4)고고학 발굴 체험(“용암이 빛은 예술품, 포천 한탄강 생생체

협”)

② 한탄강 8경 자연유산 탐방 : 5월-10월 중 10회 운영, 비둘기낭.샘소.화적연 등 한탄강 8경 일원 탐방

③ 한탄강 지질체험 캠프 : 2015년 8월 중 1회 운영, 한탄강 일대 체험/실습/레저 활동

④ 한탄강 8경 사진 페스티벌 : 한탄강 사계 사진 공모전(2015년 11월 중 시상)

1.4.3. 연천군

① 전곡리 구석기 축제 : 한탄강 소재 예술 작품 전시회(사진, 조각, 그림), 시화전 등 병행

1.4.4 한탄강 관련 단체

① 한탄강 네트워크(한타넷) : 한탄강 유역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2000년 12월에 창립된 단체이다. 이후 한탄강댐 건설 반대 운동과 생태 보호 활동, 『Hantanet News』(한탄강)를 제17호까지 발간하는 등 2003년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② (사)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 “경기북부 생명의 물줄기, 맑고 깨끗한 한탄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한탄강 수질 개선 위한 민관협력 상설협의 체계 구축.활동 극대화를 위한 그룹별 조직화.소하천별 유역네트워크 구성.지역 NGO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수질개선 성과 달성.한탄강 수계권역 수질오염원에 대한 하천 감시 상시화.한탄강을 친수하천으로의 Amenity 개선 등을 목표로 2008년 3월에 발족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하고 있으며, 연천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굽이치는 한탄강』을 제4호까지 발간하였고, ‘한탄강 유역의; 귀화 식물’과 『한탄강수계 생태자료집』 I, II를 출간한 바도 있다.